

장흥, 저소득층 100세대 난방비 지원

세대당 20만원... 상반기 지원가구 설 명절 전 지원

장흥군이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장흥군은 취약계층 100세대를 대상으로 월동난방비를 지원하는 '2023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지 및 제외 가구,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 기타 읍면장이 추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지원 규모는 저소득가정 100가구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는 1월 중 50가구를

지원하고, 하반기는 10~11월 중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세대당 20만원으로 상반기 지원가구는 설명절 전 지원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지 및 제외자, 가정형편이 어려운 차상위계층·다문화가정 등 평소 큰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어려운 가정에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김성 장흥군수는 "취약계층이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영광, 설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추진

오는 20일 영광터미널시장·굴비골영광시장서 진행

영광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 영광터미널시장과 굴비골영광시장에서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물가와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 및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적자 300여 명이 영광사랑상품권을 이용하여 제수용품 및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장 및 주변 상점가 상인들과 시

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전통시장 애용 및 영광사랑상품권 사용 홍보와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물가안정 및 가격표시제 이행을 계도하고,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과 함께 실질적 장보기가 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들이 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주민들의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인들에게 힘이 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광=서종민 기자

화순, 식량작물 맞춤형 컨설팅 수요조사

농업현장 애로사항·맞춤형 상담... 농업인 소득 제고

화순군은 식량작물분야 농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신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농업인 소득 제고를 위해 맞춤형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맞춤형 컨설팅은 벼, 콩, 감자, 옥수수 등 식량작물 재배기술 뿐 아니라, 수출농업, 경영, 판로개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가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진행된다.

특히 분야별 전·현직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턴트가 현장에서 반복

되는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기에 농가 만족도가 높다.

이번 컨설팅을 희망하는 식량작물 재배 농업인 및 단체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참고하여 1월 20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사무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현장수요 중심으로 농업인이 원하는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주용현 기자

함평, 해양수산·으뜸마을 만들기사업 공모

해양수산 24개 사업 15억원 지원

으뜸마을 3년 간 1500만원 제공

함평군은 어촌경제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사업 및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음달 6일까지 접수하는 해양수산사업은 친환경 에너지 보급, 친환경 양만장 양식시설 개선, 어선어업

생산성 향상 시설 개선 등 총 24개 사업, 15억원 규모다.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함평군 농어촌공동체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지확인 등을 거쳐 함평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3월 중 최종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남도 주요 시책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으뜸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3년 간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또 연말 평가를 통해 우수마을로 선정되면 200만원의 추가 사업비와 우수마을 현판을 수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은 이달 20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작성해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군 자체검토 및 전남도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2월 중 최종 사업 참여 마을이 선정될 예정이다.

함평군은 지난 2년간 사업에 참여한 90개 마을을 포함해 총 141개 마을이 참여하게 되며, 올해 선정된 마을은 2025년까지 3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함평=김용희 기자

담양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 업무 협약

관내 보청기 공급업체와 상호 협력... 본인부담금 20만원

담양군은 담양이비인후과의원과 굿모닝보청기, 금강보청기와 '노인성 난청검진 및 보청기 지원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인성 난청으로 사회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청기'를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노인성 난청의 주요 원인이 노화된 만큼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인 보청기 착용을 통해 진행을 늦춰야 하고, 난청을 방치했을 때 치매 발생률이 매우 높아지므로 치매 위험을 줄이려면 보청기를 착용해야 한다.

협약을 통해 군이 난청검사 대상자를 선정하면 담양이비인후과의원에서는 난청과 관련한 전반적인 검진, 보청기 업체에서는 보청기 제작 및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고 군 30만

원, 본인부담금 20만원으로 300만원 상당의 보청기를 착용할 수 있다.

단,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보장구 급여비 지원 대상자인 청각장애 등급이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보청기 지원사업은 2014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12개 읍면으

로 사업이 확대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총 570명, 733개의 보청기가 지원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차매와 같은 인지기능장애의 위험을 줄이고, 사회적 고립·단절로 인한 우울증을 예방해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향촌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승채 기자



장성, 청년농업인 지원 등 농촌지도 시범사업 추진

21억 규모·신기술 보급 등 27개 사업... 내달 3일까지 접수

장성군이 2023년 농촌지도 시범사업을 오는 2월 3일까지 접수한다.

지난해 조직개편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원과, 농업기술과 2개 부서로 새롭게 구성한 장성군은 올해 21억 원 규모 27개 농촌지도 시범사업 추진에 나선다.

농촌지원과는 청년농업인,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등을 추진하며, 농업

기술과는 식량, 원예, 특용, 축산분야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신청 자격은 사업마다 신청 기준이 달라 장성군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로 직접 문의해야 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월 3일까지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장성군은 농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 예정지 현지 조사를 거쳐 2월 중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농촌지도 시범사업은 청년농업인과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스마트농업 저변 확대에 방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라며 "현장 밀착형영농 기술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장성=심재식 기자

나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27일까지 읍·면·동 방문 접수

나주시는 근로 취약계층의 고용·생계지원을 위한 2023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4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27일 까지이며 해당 기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사업 공고 및 신청 서류는 16일부터 시청 누리집 공고에 게시될 예정이다.

공공일자리 참여 자격은 모집공고 일(1월 16일)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시민이다.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가족 재산 총액이 4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 구성원은 참여할 수 없다.

시는 사업비 2억6700만원을 전액 시비로 투입해 근로자 인건비, 4대보험, 간식·재료비 등을 지원한다.

자격 요건 등 심사를 거쳐 참여자를 선발해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32개 사업 분야별 공공일자리 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분야는 행정자료 전산화, 민원안내 및 공공서비스 행정지원, 공공시설물 관리, 환경정화, 사회복지단체 프로그램 운영 보조 등으로 세부사업 목록은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침체된 경기로 취약계층의 생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이 저소득층,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소득 창출을 통한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서철훈 기자

